건설공사현장 '시공참여자제도' 재도입 해달라

전남건설협회 "건설사들 근로자 직접 고용 경영난 가중"

"팀장제 폐지후 근로환경 개선"…건설 노동자들은 반대

광주전남지역의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2008년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이상현)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공참여자제도가 대책 없이 폐지된 뒤 4년 만에 전문건설업계는 범법 행위를 자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며 "건설현장의 구조상 필연적 제도인 시공참여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참여자제도는 지난 1997년 정부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일정 팀을 이끄는 팀장에게 시공참여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권한과 의무를 줘 부실시공을 막는 방안이다.

하지만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뒤 재재하도급을 주는 등 악용사례가 빈번해진데다 건설 근로자들이 고용관련 제도나 사회보험 등에서 배제되면서 2008년 폐지됐다.

전남도회는 "제도가 없어진 뒤 모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일용근로자의 관리책임이 늘어나고,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원가 상승, 퇴직금 및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 요구 증가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며 "경영악화로 수주를 포기한 공사에 영세 업체가 몰려 또 다른 출혈경쟁이 이어지는 등 건설업계 전반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하자 시공참여자제도는 지난 2010년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라는 다른 이름으로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됐었으나 미심의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시공참여자제도 재도입 요구에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도 폐지 뒤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됐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없어진 뒤 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과거 팀장이 월급을 미루거나 도주하는 사태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면서 고용환경이 나아졌다"며 "단체협약을 통해 일당을 정하고, 과도한 업무량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발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10년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뒤에도 불법 재도급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과거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 보다는 전문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접 시공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백화점 설 선물 매출 작년보다 6~8% 증가

신세계·롯데 등 불황속 중·저가 상품 인기

극심한 불황에도 지역 백화점들의 선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증가했다. 지역 유통업계는 설 특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밸런타인데이, 졸업·입학 선물 시즌을 앞당겨 준비하고 있다.

◇중저가 대세 선물세트 매출 증가=11일 광주지역 백화점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지난 1월 25일부터 9일까지 '2013 설맞이 선물세트 판매전'을 진행한 결과 매출이 전년 설 세일기간 대비 6% 가량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형 선물세트의 물량을 전년 설 세일기간 대비 15% 가량늘린 결과 실속형 설 선물세트의 매출이 전년에 비해 13% 가량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8% 가량 늘었으며 상품권도 매출도 10% 증가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은 개인은 11만원, 법인고객은 8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0%, 30% 감소했다.

◇밸런타인데이, 졸업·입학 공략=지역 유통업계는 설 연휴에 풀린 상품권을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 밸런타인데이, 졸업·입학 선물 시즌을 겨냥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광주신세계는 지난 5년간 밸런타인데이 일주일 전인 2월8일부터 14일까지 잡화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시계가 잡화매장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했으며, 시계 매출이 해마다 평균 9%씩 증가했다.

(주)광주신세계는 잡화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난 1일 신규 브랜드 '판도라'를 오픈했다. '판도라'는 팔찌 장식을 직접 골라 자신의 개성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고급 잡화 브랜드로 개점 일주만에 매출이 액세서리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23일까지 밸런타인데이, 졸업, 입학 등 이벤트 데이를 위한 메이크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화장품 브랜드, 날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커플링, 초콜릿, 케이크 등 밸런타인데이 기프트 선물을 14일까지 판매하며 신학기 축하 페스티벌도 24일까지 열고 뉴발란스, 아디다스, 빈폴 등 유명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 등도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작년 신용카드 씀씀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카드 씀씀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2년 연간 평균 카드결제액은 5만6075원으로 전년의 6만1240원에 비해 8.5% 줄었다.

신용카드 평균결제액은 6만4850원, 체크카드는 3만2571원으로, 소액결제 영역에서 체크카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평균결제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6750원이었다.

지난해 국내 카드승인액은 5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1000억원이 늘었다. 세금 납부 등 카드 결제 관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승인액 증가율은 2011년의 17.9%에 비해 4.3% 포인트나 줄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을 반영했다.

지난해 카드 종류별 승인실적은 신용카드 436조5000억원, 체크카드 82조2000억원이었다. 결제건수는 신용카드 67억 3200만건, 체크카드 25억 2300만건이었다.

지난해 카드 승인액이 가장 증가한 업종은 공과금서비스로 전년 대비 139.8% 늘었다. 대형할인점은 영업규제 강화로 전년대비 5.0% 증가에 그쳤다. 인터넷상거래업은 전년 대비 27.9% 늘어 유통업 중 최고실적을 거뒀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도 각종 규제와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 위축으로 카드 승인액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점차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의 설맞이 판촉활동에 참가한 김채주 조장협의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서경석 광주전남지역본부(사진 오른쪽 세번째), 강정혁 생산관리자협의회 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9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시민들에게 기아차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대우일렉, 中 '냉장고 에너지 시험소' 인증

광주에 생산공장을 둔 대우일렉트로닉스는 11일 냉기연구소가 중국 정부로부터 '냉장고 에너지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우일렉은 지난해 냉기연구소를 중국 품질인증 센터(CQC) 시험기관으로 신청했고, 최근 중국검험인증그룹(CCIC) 측으로부터 에너지 시험소 정식 등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대우일렉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냉장고 제품에 대해 경기 부평 중앙 연구소의 냉장고 시험소에서 자체설비를 이용해 중국 에너지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대우일렉은 시험소 등록 뒤 3도어 냉장고 '큐브', 양문형 냉장고 등 총 7개 모델의 중국 에너지 라벨 등록을 완료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53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6	17	23	24	29	44	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216,896,286	7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99,476,116	26
3	5개 숫자 일치	1,747,554	1,480
4	4개 숫자 일치	50,000	74,186
5	3개 숫자 일치	5,000	1,288,672

전남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15조 달성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가 상호금융 예수금 15조원을 달성했다.

6일 전남농협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수금은 지역농·축협에 예치된 예금으로 지난 2006년 10조월을 달성한 이래 6년 만인 지난해 말 15조원을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럽재정위험, 저금리 기조 등 글로벌경제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남농협 측은 분석했다.

전남농협은 지난 2일 중앙본부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상호금융 예수금 15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박종수 본부장은 "상호금융 예수금 15조원 달성은 지역주민들의사랑을 바탕으로 달성된 것"이라며"이를 계기로 햇살론 등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통해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광주공장 직원 판촉행사

설을 맞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관리자·조장협의회 회원과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지난 9일 기아차 판촉행사를 가졌다.

기아차 임직원은 이날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과 물티슈 등 판촉물을 전달하고, 기아차의 특장점 및 겨울철 차량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등 기아차를 알리기 위한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다.

판촉행사에는 서경석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기아차 지점장들과 광주공장 생산관리자협의회 강정혁 회장과 조장협의회 김채주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과 쏘울, 봉고트럭 등 기아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기아차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디자인 설계혁신 센터' 입주 예비창업자 모집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11일 금형설계 및 디자인 전용 시설인 '디자인 설계혁신 센터'에 입주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창업보육실과 제품특성 평가·해석·설계를 위한 시험·연구 설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